

성균

성균관대 Core

유형 → 기출분석 → De.코드

대성학원 부산 **이태훈** 쌤 | **논술 정규**

도입 FAQ ② - 시간은 어떻게 맞춰요?

1. 시간 단축 고려 사항

① 독해 속도 ② 사고 ③ 원고 분량 ④ 구상 ⑤ 전략

2. 각 항목별 TIP

① 독해 속도 잘 줄지 않는다.

논술 제시문은 평가원 국어와 달리 제시문의 패턴이나 고정된 전개 방식이 없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여 독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제시문 독파 속도는 논술 경험과 관계 없이 순수 독해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시문 분량이 긴 학교를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원**하는 것이 답이다. 성균관대, 중앙대, 부산대가 대표적이다.

② 사고 어차피 정답 모른다. 약속된 시간에 달리기 시작하자.

대입 논술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로 '사고 시간'을 흔히 간과한다.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려대, 서강대를 만만하게 본다. 사고 시간은 표준화가 어렵다. 그날 유독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지에서 시간이 오버될 수 있고, 예상한 것보다 문제가 쉬워서 못 풀던 학교에서 다 쓰고 나올 수 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아무리 본인의 사고가 불안정하더라도 연습할 때 **정해진 시간에 원고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다. **안전한 원고**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

③ 원고 분량 분량/시간을 표준화하라.

본인이 10분에 몇 자 쓰는지 아는 학생 있는가? 이태훈T는 수험생 시절 10분 400자로 계산했다(논리 다 완성했다고 가정할 시). 아는 게 우선이다. 오늘 원고부터 **순수 작성 시간을 계산**하자(ex: 구상 30분/작성 30분). 그래야 9월 원서 지원시 무리한 지원을 안 할 수 있다.

④ 구상 구상을 간소화하라

최근 인문논술은 Time-attack 성향이 강해졌다. 문제, 제시문 분량에 손을 대지 않고 변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늘 시간이 부족하다면 1) 개요표의 완성도를 낮추고 **바로 원고지에서 시작**하기 2) 개요를 찌더라도 개요표 대신 **제시문 옆 메모로 대체**하기 3) 원고 **전개 방식 표준화/기계화**(ex: 무조건 기준 제시문 요약 → 대상 제시문 설명으로 구성을 통일하고 비율도 기계적으로 4:6으로 만드는 것)를 통해 시간을 줄이자.

⑤ 전략 학교별 시간 배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외대 7제시문 1350자 90분 / 중앙대 12제시문 1460자 120분 / 경희 인문 7제시문 2,000자 2시간...

복잡하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지 본인만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단일 문항을 쓰는 지금도 전략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외대 합격생 A는 문제가 너무 쉽지만 완벽을 요한다는 난점을 알고 있기에 60분 애벌쓰기, 30분 다시 쓰기 전략을 택했다고 한다. 또한 애벌 원고를 감독관이 걷어가는 위험 때문에, 애벌 원고지 없이 재벌 원고를 쓰는 연습을 했다고 한다. 결국 재벌쓰기의 힘으로 합격했다. 모든 게 사by사지만, 학생만의 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기출 성균관대 2023 오전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예술은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현실과 세계를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예술의 언어는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며, 현실의 숨은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의 깊이를 자각하게 한다. 기존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대상의 변형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 가능성은 새 세계를 개시(開示)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보편성에 대한 예술의 대응 방식이 철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은 처음부터 보편성이나 전체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듯이 '미(美)' 혹은 '인간성'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프로파간다 예술¹⁾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²⁾에서는 이를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작품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옹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이념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버거운 것이다. 자유와 정의, 평등과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은 시종일관 반성되지 않으면 거짓이기 쉽다. 검토와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보편성은 가짜이다. 참된 보편성은 개별적 경험과 특수한 사례의 지속적 검토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보편타당한 원리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의 갱신 가능성을 구체적 경험 속에서 늘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보편성의 검토 작업에서 예술의 위치, 역할, 메커니즘은 독특하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술은 개념적인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 천착하고, 둘째, 이를 보편성의 지평 안으로 유도하여 재해석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구체적 보편성 혹은 개별적 일반성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특히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이야말로 예술의 제1덕목이다. 이러한 밀착을 통해 예술은 흠어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외면된 것을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예술의 저항은 선언의 낭독이나 거리에서의 쫓기 같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며, 설명이나 진단 혹은 분석과 같은 사회과학적 방식 또한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이 단순히 운명의 필연성에 복속되지 않고 그 나름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세하고도 오랜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매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실천적이지만 행동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성찰적이지만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 심미적 개입은 사유와 실천 사이에서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밀착하는 가운데 부단히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운명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면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행복으로 이끌고 나아가간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작품을 놓고 그것이 뜻하는 바에 대한 진위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런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예술작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달리, 객관적 사실을 표상하거나 구체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쓰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 예술작품에 대해 말할 때,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과 같은 비언어적 맥락은 예술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예술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일 수 없다.

주1) 특정한 이념, 상징, 인물, 사건 등에 대한 표상을 남기거나 제작자가 의도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

주2)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현실을 형상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하는 창작방법론

<제시문 2>

예술작품이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하나의 형식이다. 이 추상화된 형식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형식을 단순히 추상적 도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형식은 표상적이고 재현적이며 함축적인 요소의 결합체이다. 형식을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술에 적용되는 의미가 풍부해지고 인간의 가치 위계에서 당연히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을 위해 작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사회적 반응과 수렴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예술가는 예술 경향의 여러 갈래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을 통해 인성을 창조하며, 인간적 고뇌와 고통을

풀어보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현세의 이상향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모든 종류의 가치, 이를테면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 등은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미적으로 관조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예술이 인간의 모든 가치 영역을 표현하거나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 직접적인 혹은 특별한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언제나 고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게 해준다.

예술은 인간을 감성적,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자 예술은 독자에게 과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의 폭을 넓혀주며,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위대한 소설을 읽었을 때, 훌륭한 연극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거나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관람한 후에 우리는 그동안 알아왔던 세계가 뒤바뀌고 뒤집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느끼게 하며, 행위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게 한다. 예술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비단 문학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그림을 보았을 때, 멋진 무용을 구경했을 때, 훌륭한 음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작품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사물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신선하게 느끼며, 우리의 행위를 새로운 도덕적 척도에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시문 3>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한다. 평화로운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고 상호 공경하게 하여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엄숙하고 장엄한 음악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여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동시키고 풍속을 바꾸는 데에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음악은 사람 각자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우음을 지향한다. 이를 유가(儒家)에서는 예교(禮敎)와 악교(樂敎)를 통합하여 ‘예악교화(禮樂敎化)’라고 이른다. 예악(禮樂)은 사람들이 도덕적 선(善)을 성취하는 도덕 수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예(禮)는 이지(理智)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악(樂)은 감정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지는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고, 감정은 화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는 인륜 관계를 구별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를 편안히 여기고 그 직분을 담당하게 하며, 음악은 집단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마음을 융합하게 만든다. 어느 학자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화합하며, 예는 인륜 관계의 차이를 구별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예악의 상대적 역할과 조화를 말한 것이다. 또 『예기(禮記)』에서는 “음악은 안에서부터 나오며, 예는 밖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와 악이 하나는 안에서, 하나는 밖에서 상호 조절하여 이지와 감정 모두 평정을 얻게 된다. “음악이 잘 통하면 원망이 없고 예가 잘 통하면 다툼이 없으니, 서로 양보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예악을 두고 한 말이다”라는 구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악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악의 효용을 의미한다. 마음을 다하여 변화를 극진하게 하는 것은 음악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려 감정의 변화를 극진히 하는 것을 뜻하며, ‘성실함을 밝히고 허위를 제거하는 것은 예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짓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음악이 행해지면 뜻이 맑아지고, 예를 닦으면 덕행이 이루어진다”,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는 등의 말은 예술과 도덕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악이 나쁜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니 천하가 모두 태평해진다”라는 말은 예술이 결코 인간의 공동체적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삶을 인격적으로 고양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적 차원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예술이 된다.

<제시문 4>

예술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질과 구상(構想)의 문제이다. 예술의 재료가 의미중립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우리는 예술의 재료와 이 재료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구분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창조나 감상에 대한 관심은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바로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으며, 사람들이 흥미나 감흥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 관심이 사회의 규칙과 원리에 포함된다는 시각이나 이러한 원리를 예술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미적 창조와 감상 모두에 유해한 것이다. 미적 대상은 인식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감각적이거나 형식적인 성질 자체를 깨달았을

때의 순수한 기쁨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양 있고 선택된 사람의 특권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운문(韻文)의 수려함, 비유적 표현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구성의 탁월함 때문에 상찬을 받는다. 예술가의 창조성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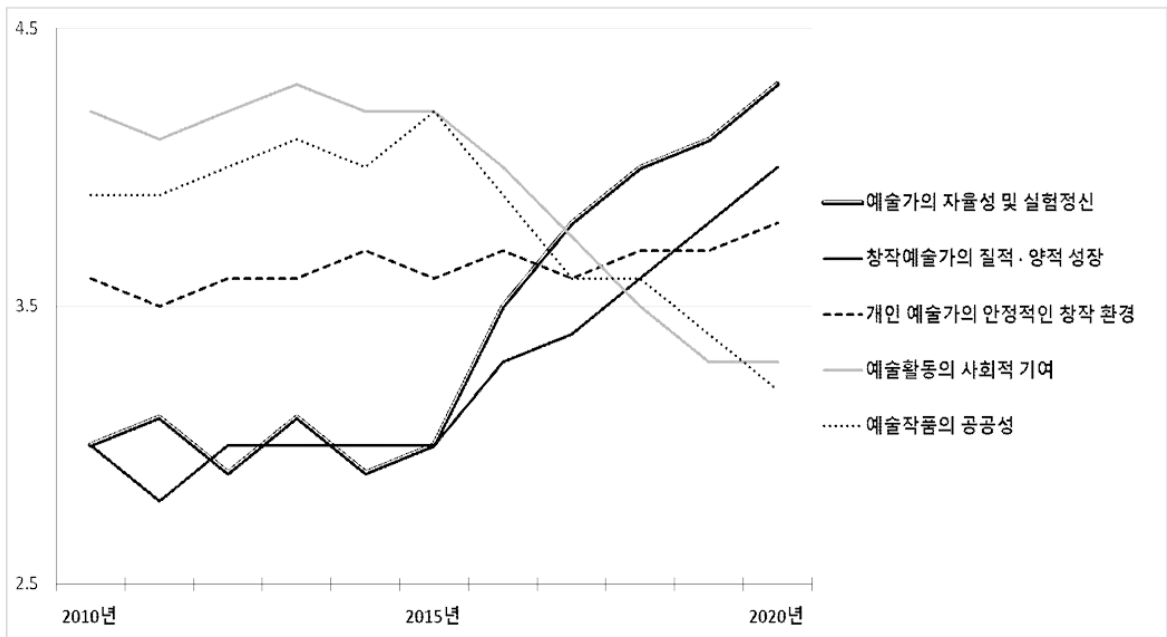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상업주의는 도구적 문화를 요구하며 예술의 유용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음미되는 가치 자체만으로 예술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예술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맥락과는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이다.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 세계는 과학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지만, 예술의 왕국은 '계산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예술은 매 순간 자기 충만성을 향유하게 하며, 경험을 생기 있게 하고, 경험이 지닌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기게 한다. 좋은 삶이란 경험의 매 순간을 풍부하고 정열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삶의 원천이 된다.

[문제 2] <보기>를 읽고 [문제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관계법령 개정 전후 변화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40점)

<보기>

A국은 국가예술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매년 문화예술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정부지원에 대한 가치인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 A국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 시행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국가통계도 추적·활용하고 있다. (관계법령 개정 전후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함)

<자료 1> 문화예술영향평가 지표 결과



주3) 각 항목에 대해 1점~5점으로 평가함.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을 의미)

<자료 2>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 예술인 인식조사 비교

설문항목: 국가예술지원사업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10년~2014년 평균]

[2016년~2020년 평균]

응답	응답률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	28%
관람객과의 교감	16%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15%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14%
사회에 대한 공헌	10%
안정적인 생활유지	8%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6%
자아성취감	3%
합계	100%

응답	응답률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	30%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18%
자아성취감	15%
안정적인 생활유지	12%
관람객과의 교감	11%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7%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4%
사회에 대한 공헌	3%
합계	100%

주4) 인식조사의 표본은 매년 2만 명으로 동일함

<자료 3>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 성과 비교

(단위: 횟수)

항목	2010년~2014년 평균	2016년~2020년 평균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	1,557	2,723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	734	496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	2,854	1,742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 ⁵⁾	532	729

주5) 국내 예술가가 해외 유명 미술관, 음악회, 공연 등에 초청된 경우를 말함

[문제 3] 한 설치미술가가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 등을 활용한 작품을 국내 유명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예술가들은 이 작품의 전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유형 성균관대 1번 - 입장분류+같은 입장 내 공·차

- 채점 등급
-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답안
 -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를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1. 성균관대 [문학 1]의 답안 구조

서론	<p>시민적 자유와 책임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또는 공화주의)를 논하고 있다. <제시문1>, <제시문4>는 자유주의의 입장으로 <제시문2>, <제시문3>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p>	<p>X G₁, G₂ K₁, K₂</p>
본론 ①	<p>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공동체 이익의 저해, 이기주의의 만연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본다. ① <제시문2>는 구성의 모순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시문3>도 개인의 성공에 대한 능력주의 신념은 불평등과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등 공동선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 연대감, 책임감을 느낄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2>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공동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였고, <제시문3>은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공동체주의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고 있다. ②</p>	<p>① 입장 전체 문장 (=공동점) ② 입장 내 제시문 비교(=차이점)</p>

2. 작성 지침

- 1) 서론 : 대논점, 제시문 분류, 키워드 부여(X-G-G.K)
- 2) 본론
 - (1) **입장 전체 문장(공동점)** ① G.K의 일반론 ② 두 제시문이 동의할 내용
예)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에서의 실용성과 경험적인 지식을 중시한다.
 - (2) **각 제시문 요약** 30/70 법칙 적용해서 최소 2문장
예) ①<제시문 1>은 보편적인 이상보다는 기술과 같은 수단과 경제적 실재가 현실을 지배한다 본다. ② 따라서 효율성을 갖춘 실용적인 해결책이나 개별적인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개인의 자유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 **입장 내 제시문 비교(=차이점)** 이상적 비교(=) ② 현실적 비교(=)
예) <제시문1>은 과학과 기술의 실현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시문4>는 이상이나 체계를 나타내는 '저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나 구체적인 현실적인 욕구에 기반 하여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
- 3) **최소 분량** : 서론[70] + 각 제시문 요약[100 x 4] + 입장 전체 문장[50 x 2] + 입장 내 제시문 비교 [90x2] = **750자**

참고 입장분류 기초

1. 입장 분류 유형

[성균관대] 제시문 <1> ~ <4>는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경희대 사회] 제시문 [가] ~ [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한국외대]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2. 입장 분류 유형의 풀이

- 1) 4~8개의 제시문을 2개의 입장으로 이항 분류
- 2) 각 Group에 Keyword 부여(이때 키워드는 1) 이항대립적 관계 2) 상호 배타적으로 제시문들 포괄
- 3) **[성균관대] 같은 입장 내 제시문 간 공통점 차이점 파악** / (경희대 사회) 대논점 파악 / 한국외대 긍정/부정 파악
- 4) 각 제시문 요약

3. 원고의 재료 - X - G - K.

- X : 대논점.
- G : [Grouping] G₁입장과 G₂입장, 2개의 그룹으로 이항 분류.
- K : [Keyword] K₁입장과 K₂입장, 2개의 개념어화.

4. 원고 포맷

구조	문단	핵심	원고의 문장 형태	필수 항목
서론	1문단	분류, 키워드 부여	제시문들은 X에 대해, N1를 주장하는 G1들과 N2를 주장하는 G2들로 분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 • G1, G2 • N1, N2
본론	2문단	각 제시문 요약	우선 N1입장은 x1을 강조한다. 제시문 가는 N _{가1} 제시문 나 는 N _{나1} 제시문 다는 N _{다1} 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제시문에 있는 근거 • 동일 입장 내의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명시 - 성균관대 : 가산점 • 제시문 간의 공통점차이점, 연관관계
	3문단		반면, N2입장은 x2를 강조한다. 제시문 라는 N _{가2} 제시문 마는 N _{가2}이다.	

분석 성균관대 2023 오전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 [스포일러] 25년도 이후의 대논점도 '예술에 관한 견해'였다. 그러나 이항대립은 다르다.

<제시문 1> ① 예술은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현실과 세계를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예술의 언어는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며, 현실의 숨은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의 깊이를 자각하게 한다. 기존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대상의 변형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 가능성은 새 세계를 개시(開示)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보편성에 대한 예술의 대응 방식이 철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은 처음부터 보편성이나 전체성을 말하지 않는다^②. 그렇듯이 미(美) 혹은 인간성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③. 프로파간다 예술^④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⑤에서는 이를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작품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⑥. 옹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이념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버거운 것이다. 자유와 정의, 평등과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은 시종일관 반성되지 않으면 거짓이기 쉽다. 검토와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보편성은 가짜이다. 참된 보편성은 개별적 경험과 특수한 사례의 지속적 검토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보편타당한 원리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의 갱신 가능성을 구체적 경험 속에서 늘 다시 검토해야 한다^⑦. 보편성의 검토 작업에서 예술의 위치, 역할, 메커니즘은 독특하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술은 개념적인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 전착하고, 둘째, 이를 보편성의 지평 안으로 유도하여 재해석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⑧. 예술은 구체적 보편성 혹은 개별적 일반성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특히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이야말로 예술의 제1목적이다. 이러한 밀착을 통해 예술은 흠어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외면된 것을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예술의 저항은 선언의 낭독이나 거리에서의 꺾기 같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며, 설명이나 진단 혹은 분석과 같은 사회과학적 방식 또한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이 단순히 운명의 필연성에 복속되지 않고 그 나름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세하고도 오랜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매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실천적이지만 행동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성찰적이지만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⑨. 심미적 개입은 사유와 실천 사이에서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밀착하는 가운데 부단히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운명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면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행복으로 이끌고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작품을 놓고 그것이 뜻하는 바에 대한 진위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런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예술작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달리, 객관적 사실을 표상하거나 구체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쓰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 예술작품에 대해 말할 때,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과 같은 비언어적 맥락은 예술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⑩. 한마디로 말해 예술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일 수 없다.

▶ 예술의 역할은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일 뿐 가치의 외침이 아니다.

① <2, 3, 4>는 쉬운데 첫 제시문인 <1>이 어려우니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이다.

② 예술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보편성, 전체성, 미, 인간성을 패러프레이징해보자. 사상, 윤리, 가치.

③ <제시문 1>은 사상, 가치를 직접 말하는 프로파간다 예술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직접 비판한다.

④ 어려운 문장인데, '도덕, 사상, 가치, 보편성'은 그것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지속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⑤ 보편성의 검토 과정에서 예술은 구체적 경험을 전달하고 이를 보편성의 영역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⑥ 이를 '경험적이지만, 선형적이지는 않음', '구체적이지만 사변적이지는 않음'으로 패러프레이징하고 싶다.

⑦ 예술 작품의 의미와 예술가의 의도를 분리하고 있다. 즉 예술 작품 자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시문 2> 예술작품이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하나의 형식이다^①. 이 추상화된 형식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형식을 단순히 추상적 도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형식은 표상적이고 재현적이며 함축적인 요소의 결합체이다. 형식을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술에 적용되는 의미가 풍부해지고 인간의 가치 체계에서 당연히 높은 위치^②를 점하게 된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을 위해 작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사회적인 반응과 수렴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③. 예술가는 예술 경향의 여러 갈래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을 통해 인성을 창조하며, 인간적 고뇌와 고통을 풀어보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현세의 이상향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모든 종류의 가치, 이를테면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 등은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미적으로 관조된다^④.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예술이 인간의 모든 가치 영역을 표현하거나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 직접적인 혹은 특별한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언제나 고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게 해준다.

예술은 인간을 감성적,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자 예술은 독자에게 과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의 폭을 넓혀주며,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위대한 소설을 읽었을 때, 훌륭한 연극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거나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관람한 후에 우리는 그동안 알아왔던 세계가 뒤바뀌고 뒤집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느끼게 하며, 행위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게 한다^⑤. 예술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비단 문학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그림을 보았을 때, 멋진 무용을 구경했을 때, 훌륭한 음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작품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사물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신선하게 느끼며, 우리의 행위를 새로운 도덕적 척도에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제시문 3>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한다^①. 평화로운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고 상호 공경하게 하여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엄숙하고 장엄한 음악은 마음을 가지런^②하게 하여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동^③시키고 풍속을 바꾸는 데에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음악은 사람 각자의 심성을 교화^④시키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움을^⑤을 지향한다. 이를 유가(儒家)에서는 예교(禮敎)와 악교(樂敎)를 통합하여 '예악교화(禮樂敎化)'라고 이른다. 예악(禮樂)은 사람들이 도덕적 선(善)을 성취하는 도덕 수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예(禮)는 이지(理智)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악(樂)은 감정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지는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고, 감정은 화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는 인륜 관계를 구별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를 편안히 여기고 그 직분을 담당하게 하며, 음악은 집단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마음을 융합하게 만든다. 어느 학자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화합하며, 예는 인륜 관계의 차이를 구별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예악의 상대적 역할과 조화를 말한 것이다. 또 『예기(禮記)』에서는 “음악은 안에서부터 나오며, 예는 밖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와 악이 하나는 안에서, 하나는 밖에서 상호 조절하여 이지와 감정 모두 평정을 얻게 된다. “음악이 잘 통하면 원망이 없고 예가 잘 통하면 다툼이 없으니, 서로 양보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예악을 두고 한 말이다”라는 구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악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악의 효용을 의미한다. 마음을 다하여 변화를 극진하게 하는 것은 음악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려 감정의 변화를 극진히 하는 것을 뜻하며, '성실함을 밝히고 허위를 제거하는 것은 예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저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음악이 행해지면 뜻이 맑아지고, 예를 닦으면 덕행이 이루어진다”,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는 등의 말은 예술과 도덕의 조화로운 관계^⑥ 속에서

① <제시문 1, 2>만 읽고 이항대립을 도출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이다. 그럼에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제시문 2>가 <제시문 1>과 대립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② 질적 가치로 패러프레이징하자.

③ 예술작품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제시문 1>이 강조한 예술의 순수성과 대비된다.

④ 예술은 도덕, 사상, 보편 가치를 가진다.

⑤ 예술이 '내면의 성찰', '내적 도야'를 가능케 한다고 패러프레이징할 수 있다.

⑥ 질문: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제시문 3>은 <제시문 1>, <제시문 2> 둘 중 누구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⑦ 예술의 도덕적 측면을 논한다.

마음 가지런, 감동, 교화, 사회 구성원 조화 다만 <제시문 2>와 달리 '공동체적으로 도덕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⑧ 예술과 도덕의 조화를 노골적으로 강조한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악이 나쁜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니 천하가 모두 태평해진다”라는 말은 예술이 결코 **인간의 공동체적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삶을 인격적으로 고양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④.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⑤, 개인적 차원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예술이 된다.

▶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게 이끌어야 한다.**

<제시문 4> **예술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질과 구상(構想)의 문제이다**⑥. 예술의 재료가 의미중립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우리는 예술의 재료와 이 재료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구분해야 한다**⑦. 예술작품의 창조나 감상에 대한 관심은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바로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으며, 사람들이 흥미나 감흥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 관심이 사회의 규칙과 원리에 포함되지는 시각이나 이러한 원리를 예술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미적 창조와 감상 모두에 유해한 것이다**⑧. 미적 대상은 인식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감각적이거나 형식적인 성질 자체를 깨달았을 때의 순수한 기쁨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양 있고 선택된 사람의 특권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문문(韻文)의 수려함, 비유적 표현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구성의 탁월함**⑨ 때문에 상찬을 받는다. 예술가의 창조성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상업주의는 도구적 문화를 요구하며 예술의 유용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음미되는 가치 자체만으로 예술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예술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맥락과는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이다**⑩.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 세계는 과학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지만, 예술의 왕국은 ‘계산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예술은 매 순간 자기 충만성을 향유하게 하며, 경험을 생기 있게 하고, 경험이 지닌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기게 한다. **좋은 삶이란 경험의 매 순간을 풍부하고 정열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삶의 원천이 된다**⑪.

▶ **예술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순수한 ‘미적’ 체험이 예술 본연의 목적이다.**

- ① 공동체를 두 번 언급한다. 공동체 모두의 선함 = 공동선
- ② 좋은 표현이다. <제시문 1>이 강조하는 예술론을 예술을 위한 예술로 패러프레이징할 수 있지 않은가? 성균관대 제시문은 길다. 길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독해의 장벽이고 누군가한테는 재료가 많은 것이다. [문제 2, 3]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만의 메모법을 만들어 두도록 하자. 이태훈T는 물결 표시를 사용했다.
- ③ 예술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예술은 형식적 아름다움만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예술 작품은 예술가, 재료, 맥락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본다.
- ⑤ 예술을 사회적 원리, 도덕적 가치로 재단하는 것을 비판한다.
- ⑥ 형식적 아름다움
- ⑦ ‘예술 위한 예술’만큼이나 좋은 표현이라 미리 정리해 두기.
- ⑧ 예술의 가치를 정서적 고양에 두고 있다.

		입장 전체 논지	개별 제시문 요지	입장 내 차이
심미주의 (예술지상주의)	<1>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의 구현으로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예술의 역할은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일 뿐 가치의 외침이 아니다.	<제시문 1>은 감각적 경험과 현실 밀착을 중시하는 반면, <제시문 4>는 예술의 자율성과 순수한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4>		예술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순수한 ‘미적’ 체험이 예술 본연의 목적이다	
도덕주의	<2>	예술의 목적은 올바른 품성을 기르게 하고, 훌륭한 모범을 제공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제시문 2>는 개인의 도덕적 성장을, <제시문 3>은 공동선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3>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게 이끌어야 한다.	

De.코드 합격자 답안&공식 답안

합격자 답안

제시문들은 예술에 관한 견해 중 심미주의 입장인 <제시문1,4>와 도덕주의 입장인 <제시문2,3>으로 나뉜다^①.

예술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제시문1, 4>^② 중 <제시문 1>은 예술작품을 통해 구체적 경험들을 재해석함으로써, 대상의 변형 가능성을 발견하고 참된 보편성을 지닌 세계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예술작품을 통해 심미적 개입을 반복하면서 개별적 일반성을 개시하기 때문에 다른 비언어적 맥락들이 예술작품의 의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제시문 4>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예술가의 의도나 다른 가치들이 아닌 그 형식 자체에 집중할 때 비로소 '미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재료의 결과물인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됨으로서 인간은 좋은 삶을 누리한다고 보는 것이다. ^③

반면, <제시문2,3>은 예술작품에 인간의 가치가 내재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④. <제시문2>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 역시 인간의 전반적인 행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이러한 예술의 특징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의도를 내재시키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3>은 '예악교화'를 강조하며 음악이 예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시켜야만 한다고 본다. 즉, 예술이 공동체나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⑤ (663자)^⑥

공식 답안

<제시문 1>, <제시문 4>는 예술지상주의 관점이다.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의 구현으로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① <제시문 1>은 예술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프로파간다 예술과 사회적 리얼리즘을 경계한다. 예술작품을 어떤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미 예술작품의 본연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예술작품의 심미적 특성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과 조우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은 기존의 외면되고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예술은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실천적이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간다고 말한다. <제시문 4>에서 예술은 역사와 사회의 맥락에서 벗어나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라 말한다. 따라서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이 예술의 유용성에서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순수한 '미적' 체험이 예술 본연의 목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사람들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좋은 삶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라고 강조한다. <제시문 1>은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을 중심으로 예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반면, <제시문 4>는 예술 그 자체의 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순수한 아름다움에서 오는 예술적 기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은 구별된다^②.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예술에 관한 도덕주의적 관점이다. 예술은 올바른 품성을 기르게 하고, 훌륭한 모범을 제공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③ <제시문 2>에서 예술작품은 사회와 상호 관계 속에서 본연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본다. 사람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의 진실성과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 척도 가운데 성찰하게 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유가의 '예악교화' 사례를 들어 예술의 목적을 말한다. 유가에서 예악은 도덕 수양의 수단으로 악은 예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진정한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제시문 2>는 예술은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고 감성적, 지적, 도덕적 성장을 예술의 목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3>은 개인 차원에서의 선택만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은 구별된다^④.

① 대논점, 그룹 키워드, 분류를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이상적인 성공관대 서론이니 적극 참고 바람.

② 입장 전체 문장.

③ 같은 입장 내 차이가 없다. 이 학생은 합격했기 때문에 상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 같은 입장 내 차이점을 꼭 적시하자.

④ 같은 입장 내 차이를 적시했다면 800자 내외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⑤ 입장 전체 문장.

⑥ 심미주의 내 비교. <제시문 1> vs <제시문 4>는 재요약 수준의 비교이다. 다른 말로 '주목 지점 차이' 수준의 비교이다.

⑦ 도덕주의 내 비교, <제시문 2> vs <제시문 3>은 비교 기준이 선명하다. '도덕적 가치의 범위'를 기준으로 개인 vs 공동선으로 깔끔하게 나뉜다.

유형 성균관대 2번 - 도표 유형(의미부여 or Quiz)

1. 개요

- [자료]들을 [문제 1]의 두 입장과 엮어서 해석하는 문제

2. 빈출 패턴

① 각 입장 지지하기

ex) <자료 1>은 기능론을, <자료 2>는 갈등론을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② 양면해석

ex) <자료 1>의 A라는 특성과 수치에 주목하면 갈등론을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B라는 특성과 수치에 주목하면 기능론을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③. 연계 및 종합

ex) <자료 1-1>에서 A국은 주거혼합정책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때 <자료1-2>에서 A국의 주거혼합정책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 1>은 주거혼합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 ①~③의 패턴은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출제된다

3. 유의사항

① ☆Quiz 성향과 의미부여 성향은 반비례한다. Quiz 성향이 강하면, '정답'만 맞혀도 합격 가능성이 있으나, 의미부여 성향이 강하면 제.기.구 및 변별 해석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석을 더해야 한다.

※ Quiz형 : 출제자가 도표를 이용하여 정답이 정해진 논리적 추론이나 설명의 흐름을 요구하는 경우
의미부여형 : 도표의 수리적, 수치적 특징이 단순하여 심도 있는 논리적 추론이 불필요한 경우.

② 발문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자.(각각, 종합적으로, 無)

각각 : '따로따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간 연계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쉽다.

종합적으로 : 골치 아프다. (1) 자료 간 연계 (2) 한 자료 각각도 or 양면 해석 (3)실제로 유의미한 종합이 일어나지 않음.
세 가지를 경우의 수를 고려하자.

無 : 수험생의 해석에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출제자가 숨겨놓은 조건을 수험생이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다.

③. ☆☆☆성균관대는 이분법적 구도로 출제된다. 따라서 A 입장의 실패는 곧 B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 보통 인문 논술에서는 A 입장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곧바로 B 입장이 옳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이 이항대립적으로 출제되었다고 가정하자. 경제성장 정책이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례를 통해 환경보호 정책이 반드시 옳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이 사례는 경제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A 입장의 한계나 부작용은 곧 B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④ 변별 논리를 도출하자. (1) 심층·추가 분석 (2) 양면해석 (3) 치열한 의미부여&제.기.구

④ 분량 : 800자 내외

분석 성균관대 2023 오전 - [문제 2]

[문제 2] <보기>를 읽고 [문제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관계법령 개정 전후 변화[㉡]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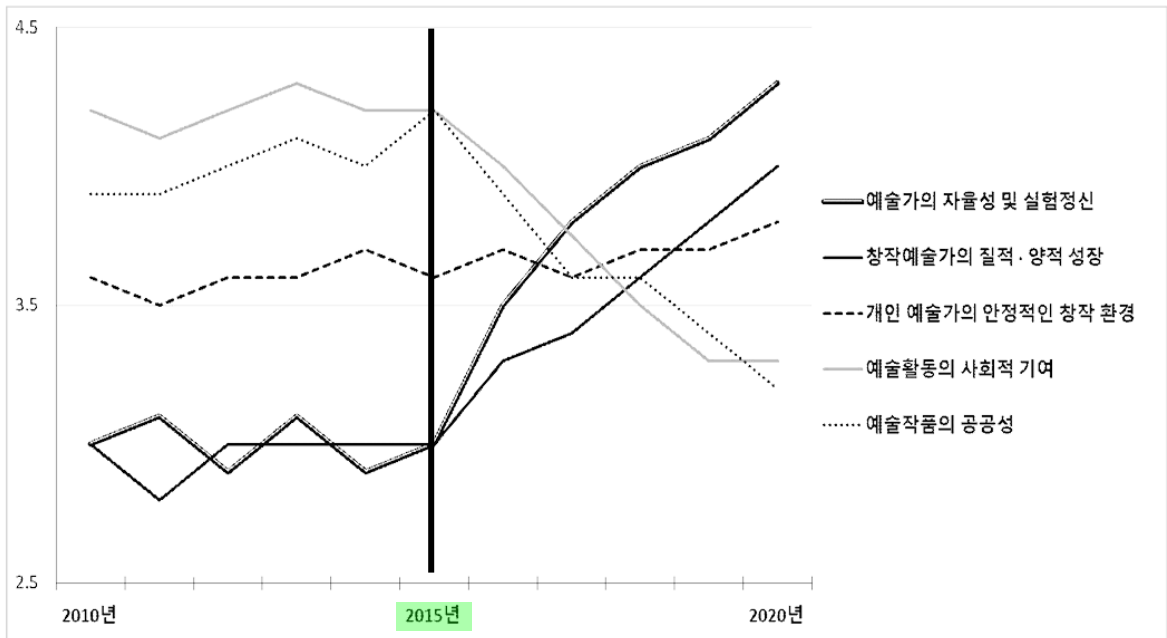
<보기>

A국은 국가예술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매년 문화예술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정부지원에 대한 가치인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 A국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 시행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국가통계도 축적·활용하고 있다. (관계법령 개정 전후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함)

- ① '종합적으로'가 출제되었다. [스포일러] 이 문제는 (1) 자료 간 연계 (2) 한 자료 다각도 or 양면 해석 두 특성 다 띈다.
- ② 핵심 변인이다. '관계법령 개정 전후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혀야 한다.
- ③ ①-④을 종합하면, <자료1>~<자료3>을 엮어서 관계법령 개정 전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심미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도 만들고, 도덕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도 만들라는 것이다.
- ④ Quiz 1. 2015년 시행된 이 정책이 어떤 성향을 띠는지 추론해야 한다.

<자료 1> 문화예술영향평가 지표 결과



주3) 각 항목에 대해 1점~5점으로 평가함.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을 의미)

분석: 2015년 이후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 정신', '창작자의 질적양적 성장', '개인 예술가의 안정적 창작 환경'이 증가하고 '예술의 사회적 기여', '예술 작품의 공공성'이 감소했다.

해석: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하고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작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2015년 A국의 정책은 심미주의적 성향을 띤다.

Quiz 1 정답: 2015년 A국의 정책은 **심미주의** 성향을 띤다.

<자료 2>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 예술인 인식조사 비교

설문항목: 국가예술지원사업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10년~2014년 평균]

[2016년~2020년 평균]

응답	응답률		응답	응답률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	28%	소폭 상승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	30%
관람객과의 교감	16%	하락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18%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15%	하락	자아성취감	15%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14%	대폭 하락	안정적인 생활유지	12%
사회에 대한 공헌	10%	대폭 하락	관람객과의 교감	11%
안정적인 생활유지	8%	상승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7%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6%	대폭 상승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4%
자아성취감	3%	대폭 상승	사회에 대한 공헌	3%
합계	100%		합계	100%

주4) 인식조사의 표본은 매년 2만 명으로 동일함

[지표별 해석 및 의미부여]

우수한 예술작품 창작 상승: 심미주의적 정책이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높여 창작을 활성화했다. → 심미주의 지지

관람객과의 교감 하락: 심미주의적 정책으로 예술이 사회와 멀어지고 대중과의 소통이 약화되었다. → 도덕주의 지지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하락: 심미주의 정책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약화되어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감소했다. → 도덕주의 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심미주의적 정책으로 예술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게 되었다. → 도덕주의 지지

사회에 대한 공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과 동일

안정적인 생활 유지: 심미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예술가의 경제적, 심리적(객관적,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 심미주의 지지 논리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심미주의적 정책이 예술가의 창조성과 자율성, 창작 동기를 향상시켰다. → 심미주의 지지 논리

자아성취감: 심미주의적 정책이 예술가의 자아성취감을 향상시켰고, 예술가로서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시켰다. → 심미주의 지지 논리

<자료 3>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 성과 비교

(단위: 횟수)

항목	2010년~2014년 평균		2016년~2020년 평균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	1,557	대폭 상승	2,723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	734	하락	496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	2,854	대폭 하락	1,742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 ⁵⁾	532	상승	729

주5) 국내 예술가가 해외 유명 미술관, 음악회, 공연 등에 초청된 경우를 말함

[지표별 해석 및 의미부여]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 심미주의적 정책이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줄이고 단절된 유기체(<4>로 만들었다. → 심미주의 지지 논리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 1) 예술과 공공성의 접점이 줄어들었다. → 도덕주의 지지

2)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줄어들었고, 예술계의 자생력이 강화되었다. → 심미주의 지지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의 교육적·도덕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 도덕주의 지지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 심미주의적 정책이 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제적 인정을 이끌어 냈다. → 심미주의 지지

[Point]

1. Quiz 성향 없음: 풍부한 의미부여 & 제기, 국가 핵심

2. 심미주의적 정책의 실패 = 도덕주의 지지 논리가 된다. 왜? 성균관대는 이분법으로 접근해야 하니까.

De.코드 합격자 답안&공식 답안

합격자 답안

<자료 1>~<자료 3>을 참고할 때 2015년 시행된 새로운 A국의 국가예술지원사업은 심미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1>에서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이 5년동안 약 1점씩 감소한 반면 심미적 가치들을 강조하는 지표들이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료2>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가치들이 2010~2014 평균에 비해 2016~2020년 평균에서 10% 미만의 응답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료3>에서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이 변경개정 이후 1000회 이상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문제 1>에서 심미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이 시행 전후와 상관없이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 이는 예술의 가치에 예술가의 창조성과 형식 그 자체로서의 예술작품이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료 3>에서 관계법령 개시가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는 심미주의적 입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3>에서 전시와 공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공공예술교육프로그램이 감소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심미주의적 가치를 강조한 국가예술지원사업이 전시와 공연의 수를 늘렸을 뿐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도를 지닌 작품이 현저히 감소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문제 1>에서 도덕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공식 답안

A국의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술지상주의와 심미주의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1>을 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4가지 평가지표에 각각 변화가 있었지만, 방향성도 일정하지 않고 변화의 폭도 소폭에 불과한 데 비해, 2015년 이후 2020년까지의 변화는 방향성도 일정하고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이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정신', '창작예술가의 질적·양적 성장'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가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2>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를 묻는 예술인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관계법령 개정 전후 '개인의 창의성 실현 및 발휘', '자아성취감'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과 '사회에 대한 공헌'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이 예술지상주의와 심미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결과 <자료 3>에서 보듯, 관계법령 개정 전후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횟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런 창작예술 분야의 노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횟수도 4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와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횟수는 30% 이상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관계법령 개정은 예술지상주의와 심미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지상주의 입장에서 예술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적 구현' 그 자체가 목적이다. 예술가들은 정부의 예술지원정책 방향이 '개인의 창의성 실현 및 발휘'와 '자아성취감' 등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자료 1>에서 보듯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정신', '창작예술가의 질적·양적 성장'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자료 또한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횟수의 유의미한 증가,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횟수에서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덕주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술의 공공성과 도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술인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에 경도되어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가버리 여기거나 아예 무시할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료 3>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와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① 같은 입장 내 차이를 적시하지 않은 [문제 1]에 비해 [문제 2]는 완벽하다 생각한다.

② Quiz의 정답인 'A국의 정책은 심미주의적이다.'를 바로 밝혔다.

③ 나는 <자료 1>만으로 A국의 정책이 심미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으나, 김X경 학생은 <자료 2>, <자료 3>의 지표까지 끌어와서 A국의 정책이 심미주의적임을 밝혔다.

④ <제시문 4>의 논리이다. 제시문 기반 구체화의 정석

⑤ [심미주의적 정책 → 예술의 도덕성 약화]의 논리를 [도덕주의 지지 논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성균관대의 이분법적 특성이다. 증명은 김X경 학생의 합격으로 같음한다.

⑥ 내용은 합격생 원고가 훌륭하기에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형식의 차이만 위 원고와 비교하겠다.

공식 답안은 1문단을 분석, 2문단을 해석으로 처리했다. 이때 1문단의 분석이 띄어쓰기 포함 752자이다.

반면 김X경 학생의 원고는 1문단에서 Quiz를 풀기 위한 수치만 제시했고, 2, 3문단에서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세만 제시했다.

이는 '분량이 촉박할 경우 분석은 추세 위주로 간략하게 쓰고 해석을 풍부하게 써야 한다.'는 대입 논술 일반 원리와 맞닿는다.

성균관대 2번은 마음먹고 쓰면 2500자까지 쓸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심 지표 및 추세만 짚고 의미 부여에 힘쓰자.

유형 성균관대 3번 - 양자 택일&자기 견해

성균관대 3번 #사고 #표현

1. 문제와 답안 예시

[문제 1] <1>~<4>는 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 시민 참여 긍정 vs 시민 참여 부정으로 출제

[문제 3] D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쟁점)하는 정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학생이 D국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지 또는 반대할지 오직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예시 답안(공식 예시 답안)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제시문 2>의 공공선 실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 2의 D국 자료를 근거로 <제시문 4>를 들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사적 이익 간의 충돌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제시문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제시문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의 <자료 2>에서 정치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 문제 특징

- 1) 쟁점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골라 A안 / B안 or 찬/반을 고르고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
- 2) [문제 1]의 제시문은 기본, 최근엔 [문제 2]의 <자료>까지 사용하기를 요구함
- 3) 외부 맥락 및 수험생 견해 반영 가능.

3. Brain storm 및 작성 방법

Brain storm

- 1) 어떤 안이 [문제 1]의 어떤 입장과 대응하는지 빠르게 판단
- 2) brainstorm : 왜? 하필? 이 쟁점에? → [일반론 나열형 3번]이 아닌, [구체적 3번]의 시작점
예) 문제 1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대립이네? 나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중 질적연구가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문제 3의 논점 환경 오염에 대한 연구는 양적 연구가 적합하다 생각해. 왜? 하필? 환경이라는 문제는 거시적이고 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니까!

작성

- 1) 주장[A]-예상 반론[B]-재반론[A] 구조로 작성
- 2) 주장과 재반론을 차별화하는 Tip 주장 : 일반론적 옹호 재반론 : 1)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2) 현실적, 구체적 총위의 옹호
- 3) 제.기.구는 기본, <자료>도 빼놓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 문제 3의 논점이 문제 2와 다르기 때문에 <자료>는 '유추'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4) 분량은 500자 내외. 욕심 X(15~20분 안에 써야 함)
- 5) 철저히 [문제 1]의 이항대립에 종속되게 작성. 제 3의 방향 절대 X

4. 예시 답안 분석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❶ 이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시문 2>),의 공공선 실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제시문 4>) ❷.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 2의 A국 자료 ❸를 들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사적 이익 간의 충돌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❹.

그러나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제시문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제시문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의 <자료 2>에서 정치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❺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❶ 두괄식으로 핵심 주장부터 제시.
❷ 성균관대 공식 답안에서 제시문 번호를 괄호에 써 놓았다. 직접적인 제기구를 시도한 것이다.

❸ 반론에서 [자료를 언급했다.
❹ 유추의 논리로 자료를 이용했다.
(근거) A국 자료에서 시민 참여의 확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목표) D국의 법안 역시 사회적 혼란만 가속화할 것이다.

❺ 재반론은 그야말로 제기구 덩어리다.
<제시문 2, 4> 및 [자료 2]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다.

분석 성균관대 2023 오전 - [문제 3]

한 설치미술가가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 등을 활용한 작품을 국내 유명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① 예술가들은 이 작품의 전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있다. 이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① 생명체를 이용한 예술로 읽어내야 한다. 쟁점은 '비윤리인가? 예술가의 자유인가?'로 대립된다.
- ② 찬성은 심미주의, 반대는 도덕주의다. 제 3의 입장은 없다.

쟁점: 생명체를 이용한 예술은 예술가의 자유인가? 비도덕적인 예술인가?

심미주의자 Brainstorm: 생명체를 이용한 예술이 비도덕적이라는 인식 자체가 도덕, 가치를 명목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도덕주의자 Brainstorm: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도덕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생명체를 이용한 예술은 선을 넘었다.

문제 1 축약

		입장 전체 논지	개별 제시문 요지	입장 내 차이
심미주의 (예술지상주의)	<1>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의 구현으로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예술의 역할은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일 뿐 가치의 외침이 아니다.	<제시문 1>은 감각적 경험과 현실 밀착을 중시하는 반면, <제시문 4>는 예술의 자율성과 순수한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4>		예술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순수한 '미적' 체험이 예술 본연의 목적이다	
도덕주의	<2>	예술의 목적은 올바른 품성을 기르게 하고, 훌륭한 모범을 제공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제시문 2>는 개인의 도덕적 성장을, <제시문 3>은 공동선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3>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게 이끌어야 한다.	

문제 2 축약

- 1) 심미주의적 정책이 예술가의 자율성, 창조성을 높였고 예술가의 자아 성취감 향상, 세계적 인정으로 이어졌다.
- 2) 심미주의적 정책이 예술의 사회적, 도덕적 기능을 망각하게 했다.

심미주의자 개요

근거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사회적·도덕적 목적의 수단이 아니다.(추상)

예술가의 자율성·창의성·실험정신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추상)

관람자는 작품을 통해 미적 체험과 감각적 경험을 얻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구체)

예상 반론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 전시는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반한다.(추상)

재반론

작품의 핵심은 도덕성이 아니라 미적 가치에 있다.(추상)

예술적 경험은 관람자의 삶을 향유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구체)

심미주의적 접근이 지속되면 예술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고 국제적 인정, 경제적 성취를 가져오게 된다.<자료 3>(구체)

도덕주의자 개요

근거

예술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추상)

예술은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추상)

관람자는 예술을 통해 도덕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구체)

해당 전시는 생명윤리에 반하므로 예술의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구체)

예상 반론

예술가의 창작의지와 실험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추상)

재반론

창작의 자유도 공동체의 가치와 긍정적 영향을 전제로 보장되어야 한다.(추상)

공동체 발전과 인격 함양에 기여하지 못하는 전시는 정당화될 수 없다.(구체)

[Point]

추상적 논의와 구체적(현실적)논의가 조화되어야 한다.

예시 : [길에서 담배피는 것은 올바른 공중 도덕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지 않은 것이며(추상), 아저씨 벌금 먹어요(구체)]

[문제 3] 적용 : 심미주의적 정책은 예술가의 자율성을 높이고 예술에 대한 사회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지만(추상) 곧 예술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구체)

De.코드 합격자 답안&공식 답안

합격자 답안

생명체를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것은 예술을 도덕적 평가의 척도로 여기는 입장으로서 찬성할 수 없다^①. 예술은 공동체적 이념과 수렴할 때 그 의미를 지니는데^②, 생명체를 이용하여 작품을 구성하는 것은 비윤리적^③이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체를 이용하여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사유와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④ 하지만^⑤ 심미주의적 가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작품의 경우 [문제2]의 <자료3>에 서처럼 전시.공연횟수는 늘지라도 공공예술교육프로그램 감소처럼 예술이 지닌 도덕적 역할을 잃어버릴 것이다^⑥. 예술을 위한 예술^⑦만을 강조하면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술의 의도에 도덕적 척도가 내재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진위나 가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의도가 내재되지 않은 '빛의 향연' 작품은 전시되어서는 안된다.(444자)

공식 답안

1) 작품 전시에 찬성하는 입장 (예술지상주의, 심미주의)

예술은 도덕성 함양이나 더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의 자율적 창작 의지는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술가는 자율성, 창의성 및 실험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예술가의 창조성이 예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의 가족과 뼈'와 '새의 깃털' 등을 전시하는 것이 동물복지나 동물보호 측면에서 인류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람자는 색과 질감의 다양함을 통한 '미적 체험'으로 순수한 예술적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세계를 신선하게 느끼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관람자 모두 자기 삶을 향유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작품 전시에 찬성한다.

2) 작품 전시에 반대하는 입장 (도덕주의) 예술은 사회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술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의 실현을 통해서만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람자는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도덕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빛의 향연' 이름으로 '동물의 가족과 뼈', '새의 깃털'을 전시하는 것은 동물복지나 동물보호 측면에서 인류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관람자는 이러한 전시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느끼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비윤리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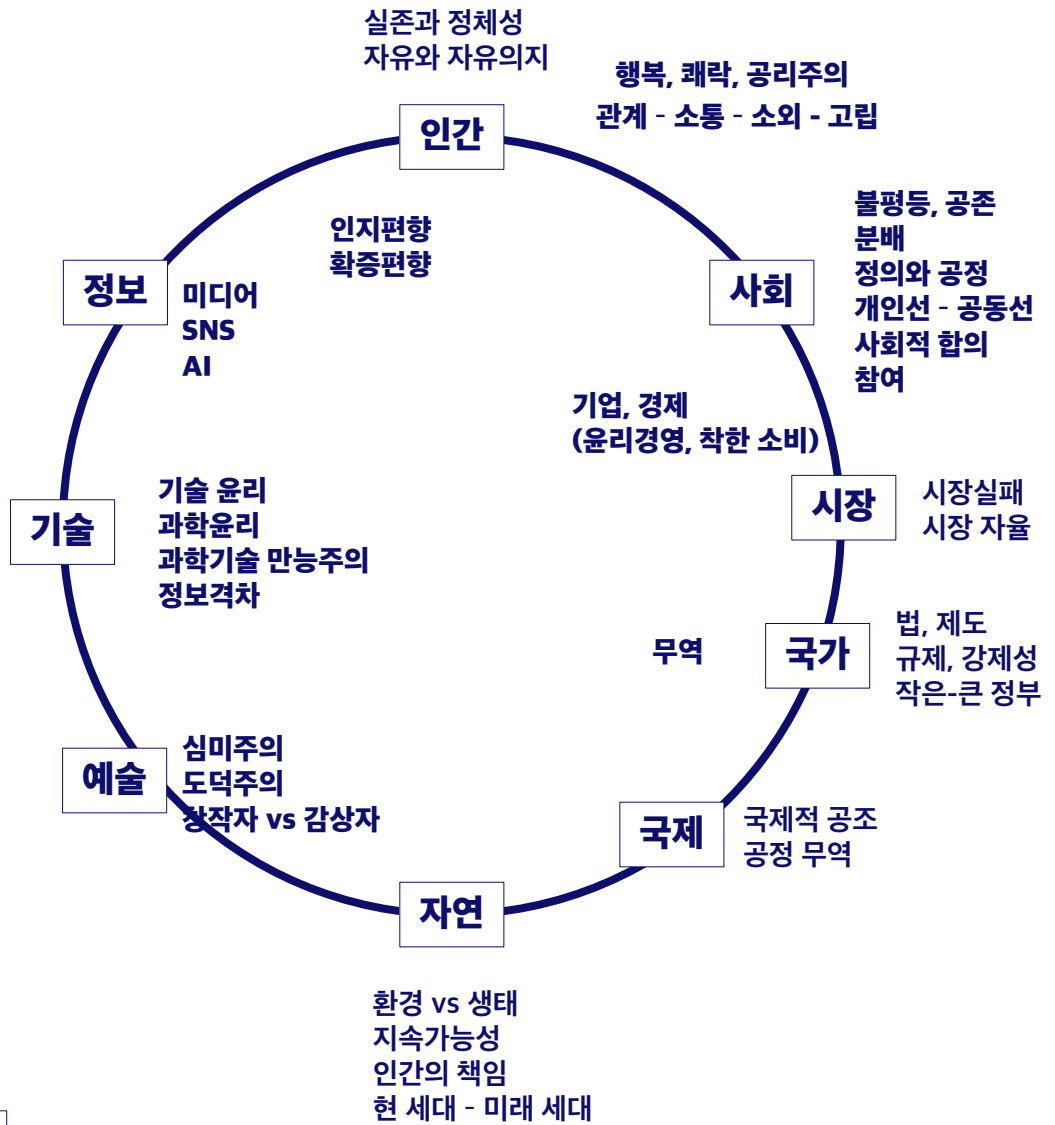
물론 예술가의 창작의지와 실험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삶의 인격을 고양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작품 전시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두괄식으로 핵심 주장부터 제시.
- ② 제시문 번호는 없지만, 제.기.구이다. 성대 23 오전 <제시문 3>의 논리이다.
- ③ 성대 3번의 외부 맥락 반영과 '하필?'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생명체를 이용한 예술은 비윤리적'라는 외부 맥락을 도입했고, '아무리 예술의 자율성이 중요해도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건 용서 못해!!!'라는 Brain-storm이 있어야 일반론의 나열이 아닌 구체화된 글을 쓸 수 있다.
- ④ 심미주의 입장에서 제시할 예상 반론
- ⑤ 재반론 시작
- ⑥ 유추의 논리로 자료를 이용했다. (근거) <자료 2>이 예술에 대한 심미주의적 정책이 예술의 도덕적 역할을 잃게 만드는 것을 보여줬듯 (목표) 동물의 생명을 이용한 예술도 예술의 도덕적 역할을 (아마) 잃게 만들 것이다.
- ⑦ 표현이 좋아 밑줄 쳐봄. 그러나 <제시문 3>, 생용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다.

빈출 주제

윤리



문화

상대주의 vs 절대주의

빈출 논리

보편과 특수

절대와 상대
일반성과 고유성

윤리와 합리

당위를 따를 것인가
이로움을 따를 것인가

인식 → 성찰 → 실천의 서사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 미래
지속적 - 장기적 - 일회적
지역적 특수성
가상공간 - 현실공간

순수 vs 참여

심화,
고착화,
양극화의 논리

소수자, 다양성, 문화상대주의

포용, 관용
다양성의 존중

주체

개인
사회
국가

사실 + 해석 = 진실

영역

윤리
사회·문화
정치
경제

형식적 - 실질적

표면 논리 - 이면 논리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명목적 - 실체적
표피적 - 심층적

양과 질

정량적 접근
정성적 접근

편익(효용)과
편익의 비교
- 합리적 선택

사전 예방 - 사후 대처

차이, 차별, 차등

인과관계 vs 상관관계

원인과 결과 - 법칙성
단순한 상관관계를 법칙성으로 오인
선행사건과 후행사건

모순, 역설

변증법

이분법의 극복
균형과 중용
극단론의 극복